

[고3] 15분 모의고사 2회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들끼리 만나 새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어근 ‘날다’가 어근 ‘가다’를 만나 ‘날아가다’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풋’이 어근 ‘사과’ 앞에 붙어 ‘덜 익은’의 뜻을 더하면서 ‘풋사과’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강’은 ‘마르다’ 앞에 붙어 ‘심하게’의 뜻을 더하면서 ‘강마르다’를 만든다.
- ② ‘첫’은 ‘사랑’ 앞에 붙어 ‘처음의’의 뜻을 더하면서 ‘첫사랑’을 만든다.
- ③ ‘새’는 ‘색시’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면서 ‘새색시’를 만든다.
- ④ ‘알’은 ‘보다’ 앞에 붙어 ‘알게’의 뜻을 더하면서 ‘알보다’를 만든다.
- ⑤ ‘군’은 ‘밤’ 앞에 붙어 ‘구운’의 뜻을 더하면서 ‘군밤’을 만든다.

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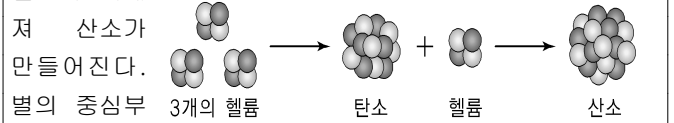
- ①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의 국민답게 질서를 잘 지킵시다.
- ② 험한 말을 하는 그를 보고, 동료들은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 ③ 선생님 말씀이야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통하거나 하겠어요?
- ④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나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곤혹스럽기만 했다.
- ⑤ 모두들 편안하게 잠든 와중에도 일터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주의 만물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00여 종이다. 흔히 이들은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소에 따라 그 생성 기원이 다르다.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이 있다.

우주가 생성될 때 일어난 대폭발로 수소와 일부의 헬륨

이 생겼다.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헬륨과 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생성 초기에는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천만 도(107K)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고온에서 원자핵이 반응하여 더 큰 원자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한다. 수소가 핵융합을 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단계가 끝난 후, 별의 중심부 온도가 일억 도(108K) 정도로 올라가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헬륨 3개가 결합하여 탄소가 만들어지며, 탄소에 하나의 헬륨이 더해



온도가 십억 도(109K) 이상이 되면 탄소와 산소가 다시 작은 원소로 깨어지고 서로 합쳐져 질량이 더 큰 마그네슘, 규소, 황 등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원소 중 철보다 무거운 것은 단순히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록 철 원소가 만들어지는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도 곧 다시 분해되어 안정된 철로 되돌아간다.

① 이것은 철의 원자핵 내 핵자 결합 에너지가 원소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핵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이며, 그 결합 에너지는 핵으로부터 핵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크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작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철이 많아질수록 별의 수축이 일어난다. 별 중심부로의 수축이 진행될수록 온도가 높아지다가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별은 폭발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이 폭발할 때 생기는 높은 밀도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전에 만들어진 원소와 결합하여 순간적으로 만들어진다. 라듐이나 우라늄 등이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이다.

결국 수소와 일부의 헬륨을 제외한 원소들은 오래 전에 존재하였던 별의 잔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소들도 우주에서 태어난 탄생 순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산소는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 ② 헬륨 중에는 별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 ③ 우주가 생성될 때 대부분의 원소도 같이 만들어졌다.
- ④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일억 도(108K)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⑤ 현재 존재하는 원소 중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묶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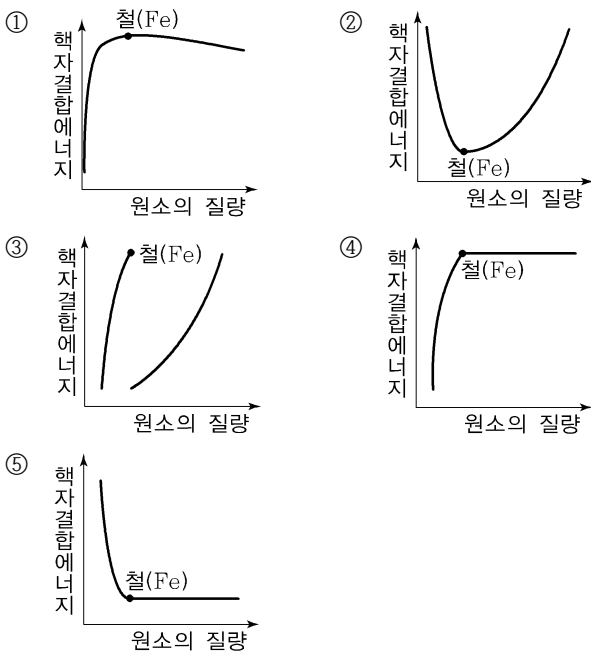
ㄱ.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ㄴ. 대상을 몇 가지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ㄷ.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ㄹ. 대립적인 견해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위 글에 나타난 사실의 인과 관계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

- ① 철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헬륨의 생성
- ② 헬륨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수소의 생성
- ③ 마그네슘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탄소의 생성
- ④ 별의 내부에 철 축적 → 별의 수축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⑤ 핵융합에 의한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라듐의 생성 → 별의 폭발

6. ㉠의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낸 그래프는?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閔)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략)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 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고. 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A]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토끼가 두꺼비더러, ‘내가 팽조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말로 후생(後生)*이다.’하고 말하니까,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읊디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왜 그리 슬퍼하나?’ 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합디다.

‘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와 동갑인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는 아득한 옛날 천황씨(天皇氏) 때에 태어나서 인년(寅年) 역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王)과 제(帝)를 거쳤으며, 주(周)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冊曆)** 하나를 이루었지. 진(秦)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漢) 당(唐)을 거쳐 아침엔 송(宋)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明)나라가 되었지. 모든 사변을 겪으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저 아이처럼 나이가 많게 살았던 자는 없을 거야. 그런데 팽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찍 사라졌다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거지.’ 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 ‘네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합디다. ㉠ 이로써 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우.”]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 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을 평평하게 해서 염전을 만들거든.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그러자 모두들 말하였다.

“좋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죠?”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소? 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천 년만에 복령(茯苓)이 되지. 인삼 가운데는 신라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정한 모양 붉은 빛에 사지가 갖추어진 데다, 쌍갈래로 뚫은 머리는 아이처럼 생겼다. 구기자가 천 년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다우. 내가 일찍이 이 세 가지 약을 먹고는 백 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숨결이 가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이웃집 할미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탄식합디다.

‘자네 병은 굶주렸기 때문에 생겼다. 옛날에 신농씨(神農氏)가 온갖 풀을 다 맛보고 비로소 오곡(五穀)을 뿌렸으니, 병을 다스리려면 약을 쓰고 굶주림을 고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네. 이 병은 오곡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겠네.’

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우. ㉔ 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샘이지.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먹고, 이제 벌써 일흔이 넘었다우. (중략)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 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디다.”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 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은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이놈이 날면 명(螟)이 되고, 붙으면 모(蠹)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디다.”

민 영감이 말했다.
“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㉕ 내 보기엔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이야.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달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지. 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은데,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

* 후생(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책력(冊曆): 일 년 동안의 월일,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적은 책.
*** 황충(蝗蟲): 풀무치. 메뚜기과의 곤충.

7. 위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②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 ④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간결한 문체로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8.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 영감은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민 영감은 신선이나 불사약이 헛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③ 손님들은 당시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민 영감은 당시 현실이 옛사람의 도(道)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있다.
- ⑤ 손님들의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9. [A]의 내용에 착안해서 도서 광고 문안을 작성해 보았다. 민 영감이 말하고자 한 의도를 가장 잘 살린 것은?

- ① 어린이를 위한 『중국사 오천 년』, 초등학교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 쉽게 풀어썼습니다.
- ② 생각을 키우는 『중국사 오천 년』, 오천 년의 경험과 지혜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 ③ 시대 구분이 새로운 『중국사 오천 년』, 고대사와 중세사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했습니다.
- ④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오천 년』, 한국인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 ⑤ 한 권에 담은 『중국사 오천 년』, 선사 시대부터 명나라까지 시대별 주요 사항을 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10. <보기>는 가상해서 쓴 글쓴이의 회고록이다. 위 글의 ㉔~㉕ 중 <보기>의 밑줄 친 ‘측면 공격이나 역습’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 보 기 >

돌아보건대 민 영감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나고도 기이하고, 능청스럽고도 걸쭉했다. 민 영감은 말 속에 단단한 속 뜻을 담아 생각을 펼치곤 했다. 민 영감은 언제나 말을 길게 늘어놓았지만, 끝에 가서는 모두 이치에 맞았다. 게다가 속속들이 풍자를 머금었으니, 변사(辯士)라고 할 만했다. 마치 전투에 나선 장수가 작전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듯 했는데, 자주 측면 공격이나 역습을 펼쳤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 수고하셨습니다. ◎ >

정답 : 1, 5 / 3, 3, 4, 1 / 4, 3, 2, 3

.....